

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5월 사역 소식 (2024년)

벌써 낮기온이 25도정도 오르내리는 따뜻한 초여름인데, 저희가 지나는 길에 넘어가는 해발 고도 3,320 미터의 고개에는 아직도 설산의 눈이 수십센티미터나 남아 있습니다. 탈라스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눈을 밟아보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는 광경에 한국 방문팀들이 모두 내려 잠시 설경을 보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따뜻한 계절에 보는 눈이라 더 신기하고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탈라스 지역에서 지원한 농수로와 학교에서 학생들의 열정과 감사함 속에 떠나오는 일정이라, 더 머물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돌아오는 보람에 긴 여정의 피로를 잊고 쉬어갑니다. 이미 천년이상 지난 이 고개를 실크로드 상인들을 통해 지나다닌 흔적들 속에 소그디안, 네스토리안들이 전파한 기독교의 흔적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때의 기독교 상인들이 지나다니던 길이라 생각하니 더더욱 의미가 새롭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늘상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하시는 위로부터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잠시 머물다가 다시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 현지 공동체와 문서 사역

현지 공동체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고, 이들을 위한 사역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동체 리더들 가운데 청년들을 담당하는 사역자가 매주 토요일에 성경공부와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게임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구들이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참석하게 하는 모임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몇 개의 공동체 리더들이 함께 오후 시간을 통해 무료 카페를 운영하며 이곳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년전에 한국에서 지원하여 건물을 지었는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공동체들의 직접적인 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시골을 다니면서 청년들을 모아 작은 모임을 통해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모임에는 중국인 가정이 2가정 있는데, 한가정은 성장한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며 공동체 그룹에 잘 연결되어 전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며 적극적인 믿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정은 혼자만 나오고 있지만, 주중에는 자영업을 하며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가정도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예배실이 20년 이상이 되면서, 초기에 천정을 너무 낮게 지어서, 천정을 높이고, 지붕을 새로 만드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독일쪽에서 자원봉사자 8명이 와서, 공동체 리더들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일과 함께 믿음과 삶을 나누며 유익한 시간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주석 13권 시리즈는 지난해에 완간이 되고, 이후 구약의 전체 스토리를 요약해 주는 단권이 번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구약을 아는 지식”이 출간되었고, 현재 “일곱문장으로 이해하는 구약”이 번역 후 감수 작업 중에 있습니다. 두권 모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저술한 책으로 구약을 하나님의 스토리로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귀한 책입니다.

2. NGO 사역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에서 5월 중순에 이곳 키르기즈 현지에 지원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특별히 이곳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탈라스라는 지역의 23개 학교에 전자칠판을 기증하였고, 농수로가 노후되어 어려운 마을에 농수로 보수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천산산맥에서 녹아내린 물들이 마을쪽으로 흘러 유입되지만 건조한 땅으로 인해 대부분 지하로 스며들어 농업에 활용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콘크리트 토관을 연결하여 농지까지 물을 연결하여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큰 도움이 되게 되었습니다. 주로 밀과 콩, 그리고 가축들의 사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23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도 전자칠판을 하나씩 제공해 주어 연구수업이나, 교사 연수 등에 활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곳의 학교는 초,중,고를 포함하여 11년제로 운영되는데, 주로 출산율을 높아 자녀들이 많은데 학교 건물들은



그만큼 수용을 하지 못하여 2부, 3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영하는 학생들의 모습 속에 저희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게 합니다. 한국에 대해 이곳 시골에서도 드



라마 등을 통해 한국을 접하고 있어서, 한국어로 인사도 하고 간단한 인사를 한글로 써서 환영하기도 합니다. 이 주변 지역으로 지난해에 한국 사역자가 한가정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의 사역과 삶에 아버지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르토 토코이 마을에는 이미 지난 1월에 통학을 위한 미니버스 3대를 구입해서 전달하였습니다. 이 통학버스를 위해



기금을 보내주신 밥상공동체의 대표와 이사, 직원들이 함께 방문하여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10km이상 되는 거리를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서, 고학년의 학생들은 걸어서 다니고 어린 학생

들은 마을에서 소유한 차량으로 정원과 관계없이 가득태워 다니던 이 마을에 통학버스가 제공되어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마을 학부모들의 감사와 학생들의 감사 인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방문팀이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한 곳은 이스쿨 호수 근처에 위치한 총사르오이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벌써 오래전부터 다양한 일들로 매년 방문했던 마을입니다. 마을 어른들 가운데 전통 민요를 부르는 팀들이 있어서, 방문팀들을 환영하는 전통 공연으로 한껏 환영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면사무소 직원들과, 방문팀들의 소개와 인사 후 올해 제공되는 석탄 전달식을 하였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 가운데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 사회적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마을위원회에서 선별하여 석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귀하게 모금한 지원금을 이곳 중앙아시아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용되어 질 때 효과적이고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고 양국의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사역과 가족 스케치

탈라스 지역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기에 고군분투하는 아이누라 영어 선생님은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내왔는데 최근에 세자녀 중 맏이가 심한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에는 결혼하여 남아공에서 살고 있는 딸과 사위가 이곳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 달동안 함께 지낼 예정인데 사위와도 더 친밀해지고 가족이 함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아는 비쉬켄 외곽지역에 있는 세종학당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파트로 참여하여 행정업무를 돕고 있는데 팀 분위기가 좋으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름동안 교회마다 성경학교, 수련회 등 여러 행사들이 많을텐데 참여하는 이들이나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덩고 녹록치 않은 상황속에서도 아버지의 자녀로 자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간사 & 김간사 드림